

2022 개정 교육과정

—
현장 선생님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Q&A: 현장 선생님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 창비교육에서 마련한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질문은 고등학교 일반사회, 윤리, 지리 선생님 540여 분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해 질문하신 것 중 공통적인 것을 모아 간추린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는 일반사회교육, 윤리교육, 지리교육 전공 교수님들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질문을 남겨 주신 선생님들과 마음을 다해 답변해 주신 세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Q&A: 현장 선생님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선생님들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차례

- 04 Q1.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나요?
- 07 Q2. 새 교육과정에서 새로 개설되는 교과목들에 대한 안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새로 개설되는 교과목들의 내용 편성 및 실제 수업 사례 연구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 12 Q3. 사회과 선생님들끼리 ‘통합사회1·2’ 시수를 나눌 때 학급 반 단위로 나눌지, 교과서 단원 단위로 나눌지 고민입니다. 4단위 수업을 일반사회, 윤리, 지리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통합사회1·2’가 수능 과목이 되었으니 단원별 전공 교사가 나누어 가르치는 것이 나올까요?
- 15 Q4. ‘통합사회1·2’ 교과의 타 전공 수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험 부담, 수행 평가 부담, 수업 준비 부담, 생활기록부 작성 부담 등이 큼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18 Q5. ‘통합사회1·2’ 수능 출제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사회1·2’ 수능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학교 수업과 괴리 없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또한 “통합사회1·2” 지도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21 Q6. 수능 과목이 된 ‘통합사회1·2’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 사회과 교과 간의 협력이 이전보다 중요해졌단 생각이 듭니다. 일반사회, 윤리, 지리 특정 교과목만 공부해

선 고득점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교사도 학생들의 학업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사회 교과목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진 않을까란 걱정이 듭니다. 본인의 전공 외에도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2 Q7. ‘통합사회1·2’가 수능 과목이 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선택 과목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통합사회1·2’와 연계된 선택 과목 지도 시 수능과의 연관성을 어디까지 두어야 할까요?

24 Q8. 저희 학교는 사회 선택 과목이 3학점으로 정해졌는데, 한 학기 안에 ‘깊이 있는 학습’, ‘과정 중심 탐구 기반 평가’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큼니다. 시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주도 활동과 개념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업이 항상 고민입니다.

26 Q9. 대입 제도 개편 및 교사 충원 문제, 기타 시스템 부족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된 것은 아닌지 많은 교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학기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우려 또한 큼니다.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7 Q10. 5등급제로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0 Q11. 교육과정의 개정이 평가 방식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새 교육과정에 적합한 형성 평가나

총괄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해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32 Q12.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과목들에 대한 실제 수업 사례 연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과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할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들도 있을까요?

33 Q13. ‘사회문제 탐구’와 같은 융합 선택 과목을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팁을 얻고 싶습니다. [일반사회](#)

35 Q14.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일반사회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사회](#)

36 Q15. ‘윤리문제 탐구’나 ‘인문학과 윤리’를 가르치려면 윤리 교사도 최신 이슈나 융합적 지식(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기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터디 등을 통해 역량을 증진하고자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나 공부 팀이 궁금합니다. [윤리](#)

38 Q16. ‘현대사회와 윤리’나 ‘윤리와 사상’ 같은 선택 과목을 수업할 때 어떤 학습 도구를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윤리](#)

40 Q17. ‘한국지리 탐구’, ‘세계시민과 지리’가 기존의 한국지리 및 세계지리 교과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탐구에 초점을 맞추면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야 할 텐데 교과서에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수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리](#)

43 Q18. 지역지리와 관련한 내용의 교수 학습 방법 및 성취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리](#)

조철기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조철기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를 먼저 말씀드리면,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 환경 변화 및 학령 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하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에 대한 필요로 추진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됐던 역량 함양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언어 소양·수리 소양·디지털 소양 등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민주 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 범교과 학습 주제 반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전환)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여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업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흥미와 책임감을 갖고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을 기른다는 교육의 목적은 유지되면서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을 반영하고 주도성(agency)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개정 비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competency)과 주도성에 대한 강조는 OECD Education 2030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이정우입니다. 조철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생태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 주는 맞춤형 교육” 및 “교육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선택 과목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으로 삼원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회과의 선택 과목도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사회 영역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으로 ‘사회화 문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정치’, ‘법과 사회’, ‘경제’, ‘국제 관계의 이해’, 융합 선택 과목으로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이 개설되었습니다.

각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 ‘사회화 문화’ 과목을 기존에는 1년간 5단위(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로 편성하였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기에 4학점(1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으로 이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김병연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김병연입니다. 총론적인 부분은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가장 큰 변화인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기 단위 과목 운영, 선택 과목 유형의 변화와 과목 수의 확대, 5등급 성취평가제 및 통합형 수능 실시 등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하여 기존의 ‘단위’ 개념이 ‘학점’ 개념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매주 4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이라면 4학

점에 해당합니다. 학기 단위로 교과서가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교과군의 경우 공통 과목인 ‘한국사’와 ‘통합사회’가 학기 단위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사1’,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 등으로 분권화되었습니다. 매 학기 한 과목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관련하여 내신 성적 마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기록 등이 학기 단위로 이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택 과목 유형과 과목 수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교과군의 선택 과목 유형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었고 일반 선택이 9과목, 진로 선택이 3과목 편성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분화되었고 일반 선택 4과목, 진로 선택 9과목, 융합 선택 6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등급 성취평가제 및 통합형 수능 실시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은 9등급, 진로 선택은 3등급(A, B, C)으로 내신 성적을 부여한 것과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모든 선택 과목의 내신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고 성취평가제를 실시합니다. 성취평가의 원래 취지는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성취평가제와 더불어 5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융합 선택 과목의 경우 5등급 성취평가제와 동시에 절대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능에서 사회교과군은 선택 과목 없이 ‘통합사회1·2’만을 수능 과목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새 교육과정에서 새로 개설되는 교과목들에 대한 안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새로 개설되는 교과목들의 내용 편성 및 실제 수업 사례 연구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조철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목이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공통 과목이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이라면, 선택 과목 중 일반 선택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 선택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 융합 선택은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과목을 1년에 걸쳐 배웠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각 과목을 1학기에 이수하게 됩니다.

사회교과군(일반사회/지리/역사/도덕)의 경우 공통 과목은 ‘한국사1’,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이며, 1과 2로 구분한 이유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각 과목을 1학기에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 및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분리 및 분책을 한 것입니다. 통합사회1·2의 경우 역사(한국사가 별도의 공통 과목으로 있어 최소한 반영), 일반사회, 지리, 도덕(윤리)을 통합한 과목으로, 2028학년도부터 수능 과목이 됩니다. 그리하여 2028학년도부터는 공통 과목(한국사1·2, 통합사회1·2)만이 수능 과목이 됩니다.

일반사회 영역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 일반 선택은 ‘사회와 문화’, 진로 선택은 ‘정치’, ‘법과 사회’, ‘경제’, ‘국제 관계의 이해’, 융합 선택은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입니다. 지리 영역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 일반 선택은 ‘세계시민과 지리’, 진로 선택은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융합 선택은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입니다. 역사 영역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 일반 선택은 ‘세계사’, 진로 선택은 ‘동아시아 역사 기행’, 융합 선택은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입니다. 도덕(윤리) 영역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 일반 선택은 ‘현대사회와 윤리’, 진로 선택은 ‘경제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융합 선택은 ‘윤리문제 탐구’입니다. 이들 교과목들의 내용 편성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수업 사례들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새로 개발된 교과서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김병연

조철기 교수님 말씀에 조금 첨언하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교과군의 선택 과목 유형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었고 일반 선택이 9과목, 진로 선택이 3과목 편성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유형이 분화되었고 일반 선택 4과목, 진로 선택 9과목, 융합 선택 6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의 유형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과목명도 다양해지고 과목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도덕(윤리)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활과 윤리’는 일반 선택 과목 ‘현대사회와 윤리’로 변화되었습니다. 내용 체계는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전과 윤리’는 진로 선택 과목 ‘인문학과 윤리’로 과목명이 변경되었고 내용 체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치관계확장법을 적용하여 4개 영역에서 15권의 고전을 소개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찰 대상으로서 나’, ‘타인과 관계 맺기’, ‘자유와 평등’, ‘다양성과 포용성’, ‘공존과 지속가능성’,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 등 6개 영역에 걸쳐 13권의 고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포함된 고전은 “쾌락”, “자유론”, “스노 크래시”, “침묵의 봄” 등으로 인간의 고통과 쾌락, 민주주의 사회의 포용성,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 기후 위기 문제 등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는 방법을 안내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직접 탐구하여 발표하는 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탐구 방법을 익히기 위한 주제로 시민의 삶에서 경험하는 행복, 사생활 보호와 공익 간 갈등, 사회적 차별 표현 문제, 난민 문제 등을 다룹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삶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빅 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공지능 관련 윤리문제를 다루고, 생태적 삶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관련 윤리 문제, 동물 복지, 기후 위기와 인류의 책임,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둘러싼 논쟁 등을 다룹니다.

새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수업 사례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융합 선택 과목인 ‘윤리문제 탐구’가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 성적 산출을 하지 않고 5등급 성취평가제로 진행된다는 점과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에서의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윤리문제 탐구’는 학생들이 스스로 윤리문제를 선정하고 탐구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의 큰 흐름 속에서 한 학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진행하는 여러 활동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수업 활동을 구성한다면, 과목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해 줄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우

저는 주로 일반사회 영역을 설명해 드리면, 새로 개설된 진로 선택 과목은 ‘정치’, ‘법과 사회’, ‘경제’, ‘국제 관계의 이해’, 융합 선택 과목은 ‘금융과 경제 생활’입니다. 교육부 정책 연구인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는 시민 생활과 정치,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국제사회와 정치라는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기존 정치 교육과정의 ‘민주 정치’-‘시민 참여(정치과정)’-‘정부 형태(통치 기구)’-‘국제정치’ 4대 영역을 기본 내용 체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명에서 알 수 있듯, ‘정치와 법’에서 정치 관련 내용이 독립된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18세 선거권, 피 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 개정에 따른 16세 정당 가입 등 최근의 정치 환경 변

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과거의 선거 부분이 예비 유권자로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서 선거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재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선거제도를 비판해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당 관련 내용도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정치과정의 투입 주체로서 이익집단, 시민단체와 함께 병렬적인 이해의 대상으로 다루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정치 참여 방법, 주체들과 비교하되 정당의 필요성과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각함으로써 학생들을 둘러싼 정치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법과 사회’는 개인 생활과 법, 국가 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학교생활과 법이라는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법’에서 법 관련 내용이 독립된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는 경제학과 경제 문제, 미시 경제, 거시 경제, 국제 경제라는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경제학적인 기초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내용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국제 관계의 이해’는 국제 관계의 특징, 균형 발전과 상생, 평화와 안전의 보장, 국제 분쟁의 해결이라는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생 과목이지만 사실상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문 교과와 국제 계열 과목들을 계승한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특성을 살리되 기존 국제 계열 과목 중 일반사회 영역이 포섭해야 하는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도록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습니다.

‘금융과 경제생활’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금융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신설 과목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위험관리라는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금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며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록 내용 요소와 실천 방안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저축 상품과 금융 투자 상품을 탐구하도록 하되 개별 금융 상품의 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저축과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수·학습 방향을 말씀해 드리면, ‘정치’, ‘법과 사회’, ‘경제’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나 원리를 중심으로 수업 준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제 관계의 이해’, ‘금융과 경제생활’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과목이지만, 기존 정치의 국제정치 부분, 경제의 금융 부분을 보다 심화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으므로 큰 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과목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기존의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세부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개념과 원리를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방향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일상생활과 연관 지어 다양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수업을 구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3.

사회과 선생님들끼리 ‘통합사회1·2’ 시수를 나눌 때 학급 반 단위로 나눌지, 교과서 단원 단위로 나눌지 고민입니다. 4단위 수업을 일반사회, 윤리, 지리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통합사회1·2’가 수능 과목이 되었으니 단원별 전공 교사가 나누어 가르치는 것이 나올까요?

이정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점 배당 기준에 의하면,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고, 공통 과목(통합사회)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1단위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며, ‘통합사회’에 배당된 8단위 중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한 학기당 1주가량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면 수업 시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셨던 대로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합사회1·2’가 수능 과목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철기

네, 교수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합사회1·2’가 수능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일반사회, 지리, 윤리 교과 내용 중 타 전공자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단원으로 나누어서 전공 교사가 수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사회1’의 경우 1단원 ‘통합적 사고의 중요성’은 일반사회, 지리, 윤리 전공자 모두 가능하고, 2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은 윤리,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은 지리, 4단원 ‘문화와 다양성’은 일반사회, 5단원 ‘생활공간과 사회’는 지리 전공자가 수업하고, ‘통합사회2’의 경우 1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은 일반사회, 2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은 윤리, 3단원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은 일반사회, 4단원 ‘세계화와 평화’는 윤리, 5단원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은 지리 전공자가 수업할 수 있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의 경우에도 대개 일반사회, 지리, 윤리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과 매우 밀접한 단원을 나누어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학교 사회와 달리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타 전공자가 가르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4단위 수업을 3개 전공에서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학교의 사회과 교사 TO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사회, 지리, 윤리 담당 교사가 1학년 통합사회에 1명씩 배정될 수 있다면 단원으로 나누어서 전공별 1시수씩 배정하고, 남은 1시수 배정은 각 학교의 사회과 TO와 학기별 교과서 내용에서 전공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반으로 어느 과에 1시수를 더 배정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사회, 지리, 윤리 담당 교사가 1학년 ‘통합사회 1·2’에 1명씩 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만한 단원은 가급적 전공 교사가 수업을 하고,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 단원은 전공 고려 없이 학교의 교과별 교사 TO에 따라 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연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합사회1·2’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질문 주신 선생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혹은 네 분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선생님들 간의 상호 소통과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교과 지도의 일관성과 통합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한 학급에서 수업하는 교사가 ‘통합사회1·2’ 과목 전체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목 개설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시수를 나누게 되면 한 학급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기 어렵고 그 교사가 지도해야 하는 학급 수가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동시에 사회 교과군에서 수능 과목이 ‘통합사회1·2’만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과거와 달리 ‘통합사회1·2’에서 난이도 있는 문항 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전공 분야 전문성이 높은 전공 교사가 관련 내용을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사회1·2’에서 수능 문항이 아직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문항의 유형이 다변

화되고 난이도가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학급 단위로 나눌지,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교과 단원 중심으로 나눌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같은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과의 상호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전공의 모든 내용을 새롭게 익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사회1·2’에 제시된 내용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므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시로 생소한 내용 요소에 대해 묻고 답하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전공 분야별 경계가 약화되고 다양한 영역 간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사들의 수업 연구는 불가피하게 지속되어야 할 듯합니다.

Q4.

‘통합사회1·2’ 교과와 타 전공 수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험 부담, 수행 평가 부담, 수업 준비 부담, 생활기록부 작성 부담 등이 큼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김병연

선생님의 고민에 깊이 공감합니다. 게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이 기존 ‘통합사회’ 수업에서 느끼시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통합사회1·2’가 수능 과목이 됨에 따라 과목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과목이 ‘통합사회1’, ‘통합사회2’로 나뉘어 학기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한 학기 내에 내신 성적 마감은 물론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기록을 마감해야 합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과목 전체를 한 선생님이 오롯이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선생님이 단원을 나누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의 말씀처럼 전자를 염두에 두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전공 분야에 관한 공부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희망적으로 보자면 과목의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타 전공 분야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융합 선택 과목이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범대학에서 배운 내용만으로 가르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들의 공부가 불가피하게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업, 평가, 기록의 문제는 학기 단위 과목 운영과 연계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한 학기 안에 모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매우 힘들고 벅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학급당 만나야 하는 시수도 3~5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능 과목이라는 점에서 5시간으로 편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에 경

힘해 보지 못한 수업 시수입니다. 수업 시수가 늘어나는 점과 학기 내 내신 성적 마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업 설계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한 학기 동안 교사가 중심이 된 내용 설명 위주의 강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조사, 탐구,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지필 평가를 통해 내신 성적 산출에 기여할 수 있고, 후자는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한 학기의 수업 및 평가 설계가 잘 이뤄지면 학기 중에 교사가 여유를 갖고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기 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철기

네, ‘통합사회1·2’ 교과가 수능 과목이 되면서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학급 단위 수업 또는 타 전공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통합사회1·2’가 수능 과목이 되면 이전보다 비전공 단위 수업 시 부담감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담당 교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공자가 해당 단원의 학습지와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타 전공 교사와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어렵다면 타 학년 전공 교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 EBS의 강의를 참고하여 타 전공을 학습한 후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와 수행 평가 계획을 세울 때 학교 내의 타 전공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통합사회1·2’를 담당하는 다양한 전공 교사들의 협력적 교수 설계, 시험 출제, 수행 평가 계획 수립, 생활기록부 작성 등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이정우

‘통합사회1·2’ 과목은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설 취지를 이해한다면, ‘내 전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 전공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려주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평화’는 윤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접근

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공 간 교사 모임을 활성화**하여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창비교육에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임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Q5.

‘통합사회1·2’ 수능 출제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사회1·2’ 수능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학교 수업과 괴리 없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또한 “통합사회1·2” 지도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우

수능 과목이 바뀌어서 선생님들의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수능이 바뀔 때마다 예시 평가 문항을 공개하였던 전례를 고려하면, 새로운 수능이 시행되기 전에 문항이 어떤 방향으로 출제될지에 대해 예비 평가 문항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안내하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 수능 출제 방향을 선불리 예단해서 수업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통합사회1·2’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사회1·2’의 수많은 내용 요소는 이후에 배울 선택 과목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학습자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공부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후 선택 과목을 운영하실 때 ‘통합사회1·2’ 내용 요소와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통합사회1·2’의 내용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통합사회1·2’에서 기본을 충실히 다지도록 수업을 운영하신 후, 이후 선택 과목에서 ‘통합사회1·2’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심화 학습을 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김병연

저도 선생님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수능에서 ‘통합사회1·2’의 출제 방향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특히 ‘통합사회1·2’가 사회교과군의 유일한 수능 과목이 된다는 발표가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이어진 교과서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3년 12월에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윤리(도덕)과의 경우 심화 과목으로서 ‘현대사회와 윤리’, ‘인문학과 윤리’, ‘윤리문제 탐구’ 등이 있는 상황에서 ‘통합사회1·2’ 교육과정에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과서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사회1·2’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수능에서 제외된 다양한 선택 과목의 수업이 파행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있습니다.

통합사회1·2 수능 문제는 기존 사회교과군의 다양한 과목에 연관된 내용 요소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통합사회2’에서는 ‘사회정의와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데 이는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의 ‘민주시민과 윤리 -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어떻게 공정함을 추구하고 부정의를 바로잡는가?’라는 내용 요소로 심화됩니다. 이처럼 ‘통합사회1·2’의 내용 요소들은 모두 교과별 선택 과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수능 문항은 검인정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 등을 출제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출제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사회1·2’를 지도할 때 선택 과목의 내용을 연결 지어 다소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조철기

사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당시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1·2’가 수능 과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통합사회’ 과목이 만들어졌을 때 통합적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 점차 학교 현장에 어느 정도 안착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사회1·2’ 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되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현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FGI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사

회1·2'의 문항 수 및 배점, 시험 시간 및 시행 순서, EBS 교재 개발 및 연계 방안, 출제위원 1인당 출제 문항 수, 문항 출제 방식, 검토위원단 구성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학교에서 수능 과목으로써 '통합사회1·2'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024년 9월 26일 교육부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수능 과목이 된 ‘통합사회1·2’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 사회과 교과 간의 협력이 이전보다 중요해졌단 생각이 듭니다. 일반사회, 윤리, 지리 특정 교과목만 공부해선 고득점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교사도 학생들의 학업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사회 교과목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진 않을까란 걱정이 듭니다. 본인의 전공 외에도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정우

이 문제는 수능 문항 출제 방향이 구체적으로 안내되기 전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원칙과 기본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즉, ‘통합사회1·2’ 수업 시에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후 선택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족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충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전공이 다른 교사 간의 협력은 교육과정의 변화와 무관하게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통합사회1·2’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되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통합사회1·2’ 과목 자체가 교사 간의 협력이 필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 평가를 구상할 때, 특정 전공에 편중한 내용으로 구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평가에서 여러 영역이 융합된 형태의 수행 평가를 구상하거나(예 과목 간 연계형 융합 프로젝트), 일 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차례 평가를 통해 여러 영역을 골고루 평가하도록 하면서 전공 교사 간 협업하는 평가를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통합사회1·2’가 수능 과목이 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선택 과목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통합사회1·2’와 연계된 선택 과목 지도 시 수능과의 연관성을 어디까지 두어야 할까요?

조철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경우 선택 과목의 유형도 늘어나고(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신설 과목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평가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수능 과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학교에서 개설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만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선택 과목도 수능 과목이라는 안전장치 혹은 굴레를 벗어나 과목 콘텐츠와 교사의 교수 역량만으로 학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선택을 받아야 하는 과목이 되었고, 선택받은 과목은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진로와의 연계성 그리고 내신을 위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작성을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통합사회1·2’보다 심화된 내용이거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1·2’와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다양한 선택 과목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활성화하고, 교사들은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 평가 방법에 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 아니지만 내신에는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을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내신 등급 면에서나 향후 원하는 학과 진학을 위해서 선택 과목 수업을 제대로 수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과학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사회와 문화’, ‘법과 사회’, ‘정치’, ‘경제’, ‘금융과 경제 생활’, ‘사회문제 탐구’, ‘국제 관계의 이해’ 등 사회 과학 계열의 과목을 폭넓게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각 과목 이수 시에 과정(수행 평가 등 다양한 활동) 및 결과(등급)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능과 해당 과목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사회1·2’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통합사회1·2’의 내용만으로는 수능을 준비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1·2’와 해당 선택 과목의 연관성을 점검하여 ‘통합사회1·2’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여 수능에 대비하고, ‘통합사회1·2’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활동이나 수행 평가에 중점을 두어서 내신 등급 산출이나 생활 기록부 기록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산출되도록 전략을 이원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사회 선택 과목이 3학점으로 정해졌는데, 한 학기 안에 ‘깊이 있는 학습’, ‘과정 중심 탐구 기반 평가’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큼니다. 시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주도 활동과 개념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업이 항상 고민입니다.

이정우

‘깊이 있는 학습’과 ‘과정 중심 탐구 기반 평가’는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즉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 학습은 세부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수업이 아니라 사회과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학생이 탐구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수업 방법입니다. 수업을 설계할 때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기보다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주요 개념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이 개념과 원리를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탐구를 통해 습득하도록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체계에서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살펴보고, 이것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와 문화’ 과목의 ‘일상 문화와 문화변동’ 단원을 예로 들면, 핵심 아이디어는 ‘대중문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문화의 생산과 공유에 영향을 미친다.’이고, 관련된 지식·이해 요소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미디어 효과 이론, 미디어 메시지의 분석과 생산입니다. 과정·기능, 가치·태도는 특정 단원과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과목 전반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한 것이므로,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요소를 지식·이해 요소와 결합하면 됩니다.

즉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친숙하게 느끼는 대중문화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대중문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교육과정 성취 기준 해설)하는 수업을 할 때,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하고, 그에 맞추어 대중문화를 평가하도록 수업을 구상하는 것입

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지식·이해), ‘다양한 이론과 관점의 특징 비교하기’(과정·기능), 자신과 다른 입장에 대한 존중(가치·태도)을 학습하여 핵심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대입 제도 개편 및 교사 총원 문제, 기타 시스템 부족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된 것은 아닌지 많은 교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학기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우려 또한 큼니다.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철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측면과 관련하여 현재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디지털 친화적인 학습자의 성향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특징으로 하는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업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흥미와 책임감을 갖고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아 학생들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맞춤형 이수 경로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일반 선택-진로 선택의 체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공통-선택(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조정되면서 선택 과목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와 관련하여 늘어난 새로운 다양한 선택 과목이 학생들의 진로, 흥미 등과 관련하여 선택받도록 해야 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을 함양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앞으로 실시될 현장 교원 대상 전공 연수를 적극 활용하고, 교사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여 풍부한 수업 자료와 수업 방법에 대해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조철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원래 고교학점제 취지에 따라 공통 과목을 제외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만을 계획했으나,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부득이 1학년 공통 과목과 2, 3학년 일반 선택·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 5단계(A~D)와 상대 평가 5등급제를 병기하는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 5단계만 적용).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 5단계만 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절대 평가 5단계에 상대 평가 5등급을 추가하여 고교 학점제 취지와 맞지 않게 상대 평가 과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이전과 같은 상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변화를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의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상대 평가로 반영되는 교과목 수는 늘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 부담이 적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맞추어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상대 평가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교과목 선택 보다는 모집단의 수에 의해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공 연계 교과목 과목 이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연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에 2028학년도 입시부터 선택 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을 실시하고 내신 성적은 5등급 체제를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향은 2025년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는 선택 과목의 내신 등급을 5등급으로 구

분하고 성취 평가제를 실시합니다. 성취 평가의 원래 취지는 상대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성취평가제와 더불어 5등급 상대 평가를 함께 실시합니다. 융합 선택 과목의 경우 5등급 성취평가제와 동시에 절대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능에서 ‘통합사회 1·2’만을 수능 과목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꾸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교사와 학생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9등급제에서는 1등급(1~4%, 4%), 2등급(4% 초과~11%, 7%), 3등급(11% 초과~23%, 12%), 4등급(23% 초과~40%, 17%), 5등급(40% 초과~60%, 20%), 6등급(60% 초과~77%, 17%), 7등급(77% 초과~89%, 12%), 8등급(89% 초과~96%, 7%), 9등급(96% 초과~100%, 4%)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5등급제에서는 **1등급(1~10%, 10%), 2등급(10% 초과~34%, 24%), 3등급(34% 초과~66%, 32%), 4등급(66% 초과~90%, 24%), 5등급(90% 초과, 100%, 10%)**입니다. 4%의 학생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10%의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 수업과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내신 성적을 가르기 위해 고난도 문제를 활용했던 지필 평가 출제와 운영에서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소 완화된 등급제하에서 내신 등급 산출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움을 얻고 이를 나누는 과정이 수업에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한 과목을 한 학기 내에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선택 과목이 더 이상 수능 과목이 아니라는 점, 주당 수업 시수가 3~5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점, 학생들의 수업 중 활동을 관찰한 기록이 대학입시에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수업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조사하고, 토의·토론하고, 발표하고, 보고서를 완성하는 등의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특기 사항으로 기록함으로써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개정이 평가 방식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새 교육과정에 적합한 형성 평가나 총괄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해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김병연

교육과정 개정이 평가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문서에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 제도 개선 등을 연계하다 보니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신 성적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는 것과 같이 굵직한 제도 개선은 평가 방식 변화를 위한 오랜 기간의 논의가 제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2023년 12월에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새로운 입시 제도는 내신 성적 5등급제 성취평가제, 즉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절대 평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5등급제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 평가를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에 적합한 형성 평가나 총괄 평가 방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평가 방향에서 주요 내용은 학습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환류할 것,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교과별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따라 성취 수준을 설정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에 반영할 것, 수행 평가를 내실화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확대할 것, 학교의 여건과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할 것 등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고, 내신 성적은 5등급제로 완화되며, 대학입시의 근거 자료로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각종 기록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종합해 보면,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을 암기·이해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지필 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의 성적을 한 줄로 세워 내신 등급을 뚜렷하게 산출하던 과거의 평가 관행이 약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학생 각자 자신의 흥미와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한 과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습하고 표현하며, 교사는 학습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여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역량 함양이라는 교육과정 총론의 목표와도 부합합니다. 이를 위해 학기 초 평가 계획을 세울 때 일회성, 단발성 수행 평가가 아니라 한 학기 수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관찰해서 평가할 수 있는 과정 중심, 활동 중심 평가 과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는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개별적인 피드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통해 피드백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학생을 만나는 교사들에게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해 교사가 여유 있는 수업의 관찰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가능하도록 수업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수업 중에 학생이 활동하고 말하는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피드백의 주체가 반드시 교사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업 중 활동이나 발표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학습지나 인터넷 도구(예 멘티미터, 구글 설문지, 구글 시트, 팅커벨 등)를 활용하여 작성한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교사가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과목들에 대한 실제 수업 사례 연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과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할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들도 있을까요?

김병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교과목에 맞는 수업 사례 연구나 교과 정보를 소개한 자료는 아직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성취 평가제 도입과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을 제시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자료를 개발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앞둔 중학생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제시할 과목 선택 안내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과목 소개 자료나 실제 수업 사례 연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025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24년 하반기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교사와 학생을 독자로 설정한 다양한 자료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듯이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수업 방법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기 단위로 교과목 이수가 마무리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의 완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과 달리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 방식으로 5등급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수업의 양상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일반 선택)과 ‘고전과 윤리’(진로 선택)의 평가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수업 운영에 차이를 시도해볼 수 있었음을 떠올려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새 교육과정에서 융합 선택 과목은 내신 등급 산출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여 계획한 후 진행할 여지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융합 선택 과목은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문제 탐구’ 과목의 개정 시에 다음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사회문제를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도록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각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단원별로 특정 사회문제를 지정하여 사회문제 탐구 방법에 따라 각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것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문제’,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문제’라는 큰 범주에서 교과서나 교수·학습 차원에서 자율성 있게 접근하도록 사회문제의 범위를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성취 기준은 ‘실태 파악(조사)-(원인 파악)-해결방안 제시’라는 구조로 구성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는 가벼운 수준에서 4단원(사회문제 사례 연구) 학습 전 여러 사회문제를 탐색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살려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 과목 ‘사회와 문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정치’, ‘법과 사회’, ‘경제’와 함께 융합 선택 과목 ‘사회문제 탐구’를 개설하여,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 학습한 주요 개념과 원리를, ‘사회문제 탐구’ 수업에서 학습자가 사회문제를 선정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목 간의 연계 학습이 이루어질 때 융합 선택 과목으로서 ‘사회문제 탐구’의 개설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일반사회 영역의 다른 선택 과목의 학습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회문제 탐구’에서 별도의 개념과 원리, 이론의 학습이나 여러 사회문제의 세세한 내용을 알도록 하는 데 치중하는 것보다는 사회문제에 대한 탐구를 경험하면서 사회과학의 탐구 방법과 절차를 익히고, 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사회현상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도록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정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성취 기준의 수나 내용량의 감축이 있었으나, 중학교 ‘사회’ 일반사회 영역의 경우 이후에 학습자들이 일반사회 영역(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등)을 필수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특히 지식·이해) 면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달라진 부분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사회 문제 및 쟁점 교육을 보다 강조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기본적인 사회 과학의 내용 요소(사회현상 이해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습득을 기초로, 사회 과학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조사 분석하고,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 및 공공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토의 및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 진술 방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윤리문제 탐구’나 ‘인문학과 윤리’를 가르치려면 윤리 교사도 최신 이슈나 융합적 지식(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기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터디 등을 통해 역량을 증진하고자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나 공부 팁이 궁금합니다. 윤리

김병연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사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부여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융합 선택 과목 도입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경계를 낮추고 유연하게 교과 내용에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리문제 탐구’에서는 시민의 삶과 관련하여 난민 문제를, 인공 지능 시대와 관련하여 메타버스, 빅 데이터, 인공 지능 등을, 생태적 삶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물 복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등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윤리’에서는 6개 영역에 걸쳐 13권의 고전을 소개하고 있는데, 새롭게 포함된 고전은 “쾌락”, “자유론”, “스노 크래시”, “침묵의 봄” 등으로 인간의 고통과 쾌락, 민주주의 사회의 포용성,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 기후 위기 문제 등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비 교사로서 대학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내용과 책들입니다.

혼자서 새로운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새 교육과정의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진행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 또는 학교 밖 교원 학습 공동체를 교과 지도를 중심 주제로 삼고 책 읽기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교육청에서 교원 학습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윤리 교사로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지도 방법을 토의하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 시민 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연수 등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도덕·윤리 교사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다양한 연수 정보를 접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비교육에서도 선생님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해 보시면 어떨지요?

김병연

두 과목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현대사회와 윤리’가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한 과목이라면, ‘윤리와 사상’은 좀 더 체계적이면서 딱딱한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서 두 과목은 각각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5등급 성취 평가와 상대 평가를 진행합니다. 두 과목 모두 수능 과목에서 제외되었지요.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1등급 기준이 4% 이내에서 10% 이내로 바뀌었기 때문에 1등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 간의 경쟁이 다소 완화될 수 있고, 교사들의 출제 부담도 다소 줄어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과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과 수업 방법에서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3~5시간 동안 이 과목을 배우고 마무리하기 때문에 수업, 평가, 기록을 염두에 둔 수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능 과목이 아닌 상황에서 학생들이 윤리 선택 과목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은 자신의 진로, 진학과 일치하거나 간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 설명 위주의 강의로 주 4시간 남짓 되는 많은 수업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준비하더라도 학생들의 관심과 선택률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듯이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윤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학의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 윤리, 의료 윤리, 생태 윤리, 과학기술 윤리 등의 용어를 통해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면서 윤리 수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학생들이 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기 단위 수행 평가 과제를 기획하고 수업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 평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 학기 수업 전반을 통해 이뤄지는**

프로젝트형 활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과제 수는 줄이고 단계는 세분화해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멘티미터, 구글 시트, 구글 설문, 땡커벨 등 다양한 수업 도구들을 활용할 여지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제 토의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멘티미터의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조별 탐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여 조 편성을 하기 위해 구글 설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한 학기 전반의 개별/팀별 과제를 소개하고 역할 분담을 할 때는 구글 시트와 같은 도구도 매우 유용합니다. 아울러, 수업 동기 유발이나 형성 평가를 위해 땡커벨의 퀴즈, 토론, 게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지리 탐구’, ‘세계시민과 지리’가 기존의 ‘한국지리’ 및 ‘세계지리’ 교과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탐구에 초점을 맞추면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야 할 텐데 교과서에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수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리

조철기

먼저 일반 선택 과목인 ‘세계시민과 지리’와 ‘세계 지리’의 차이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으로 시민 교육이 강조됩니다. 이에 2022 개정 지리 교육과정은 기존의 ‘세계지리’ 과목을 넘어서는 관점과 접근을 강조하며 ‘세계시민과 지리’라는 과목을 탄생시켰습니다.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전체 단원 구성의 논리적 연계성 고려, 다중 스케일 관점 접근과 관계적 사고 함양, 타인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의 주안점은 초중고 교육과정 간의 계열성 확보, 국가 및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내용 구성, 학습량 축소입니다. 전반적으로 학습량을 감축하면서 ‘세계시민과 지리’라는 새로운 과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선정하는 데에는 많은 숙고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지리를 어떤 분량으로, 어떤 내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리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자연지리 내용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지리 교과에서 자연지리에 대한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 ‘세계지리’ 과목에서 세부적 기후 구분과 이에 기반한 어려운 그래프 문제, 각종 미지형 관련 개념과 용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자연지리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기후와 지형 단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후의 경우, 기본적인 기후 패턴과 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되 세부적인 기후 구분에 치중하는 학습은 지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와 인간 생

활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형 단원에서도 지형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세세한 미지형들을 백과사전식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지형을 중심으로 지형과 인간 삶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홀리스틱 지오그래피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지형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관점들을 이해함으로써 지형 학습에 가치 지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지리 탐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생긴 과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국지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온전히 새로운 과목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과목의 성격이 변화하였고, 과목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탐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한국지리’ 과목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불만과 변화의 요구가 많아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한국지리 탐구’의 개정 방향 및 내용 체계 개발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지리 탐구’ 개정의 방향은 크게 1) 쟁점과 이슈에 초점, 2) 지리 탐구 강조, 3) 진로와 실생활 강조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지리 탐구’는 쟁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리적 이슈와 쟁점에 주목하려는 의도는 일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루지 않고, 현재 학생들의 삶과 관련 있고 중요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며, 이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의도입니다.

둘째, ‘한국지리 탐구’는 ‘탐구를 통한 지리 학습’을 지향합니다. 이때 지리 탐구는 “지리적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근거를 찾아 답하고, 탐구 과정의 적절성을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지리 탐구’에서는 탐구의 전체 과정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며, 국토 스케일과 학생들이 위치한 지역 스케일에서의 탐구, 그리고 공간 정보 및 야외 조사를 활용한 탐구를 강조합니다.

셋째, ‘한국지리 탐구’는 학습의 실생활 연계와 진로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때 역량 교육은 “교과를 삶과 연계하여 가르침으

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 지식,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통합된 교과 역량을 습득하여 그것이 교과 맥락을 넘어 실생활의 다양한 맥락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한국지리’ 과목의 내용이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있어 체험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받아들여, ‘한국지리 탐구’에서는 실생활에서 소재를 찾고 학습의 유용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학습 결과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느끼고, 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지리 탐구’의 내용을 실세계의 주요 이슈와 국가, 지역의 과제와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지리 탐구’가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한국지리’ 그리고 그 과목을 가르치던 방법과 과감한 이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목명은 매우 유사하지만 새로운 과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은 많이 바뀌었으며, 가르치는 방법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리’ 과목이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져 오면서 쌓여져 온 수업 자료와 콘텐츠는 교사들에게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변화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탐구를 위해 개발된 과목을 탐구적 접근으로 가르치고 배우지 못한다면 실패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지리 탐구’를 과목의 성격에 맞게 가르치기 위해 수업 자료 개발과 함께 교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지리 탐구’는 탐구로 배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리 탐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15개의 성취 기준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취 기준이나 주제를 학생들이 탐구할 질문으로 변환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탐구 질문은 하나의 좋고, 모범이 되는 탐구 질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 학생들의 일상생활 경험이나 호기심을 통합할” 수 있는 질문을 교사가 만들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철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 ‘세계시민과 지리’, 진로 선택 과목 ‘한국지리 탐구’에서 지역지리와 관련한 내용의 가장 큰 변화는 신지역지리학에 기반하여 다중 스케일 관점을 통해 학생들의 관계적 사고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다중 스케일 관점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단일 스케일이 아니라 다양한 스케일이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지리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 내용 구성의 경우 특정 공간 스케일에 고착되어 지역이 마치 파편화 또는 분절된 것처럼 다루어지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됐습니다. 지리적 현상은 하나의 스케일에서 가시적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다중 스케일의 매개와 관여를 통해 발생하고 펼쳐집니다. 따라서 지역지리 학습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실행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착화된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공간 스케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지리는 특정 스케일에 고착하기보다는 지역, 한국, 세계의 스케일 간 균형을 맞추고 스케일 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지리 탐구’의 경우, 기존과 달리 공간 스케일을 동아시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간의 상호 연계와 의존성을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스케일에서 접근하자 했습니다. 이러한 다중 스케일 관점은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세계시민과 지리’에서 모두 공통으로 나타나며, 교사들은 어떤 지리적 현상 또는 지역에 대한 교수-학습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관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로컬에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구체적인 상품(사슬) 또는 음식(사슬)을 추적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조철기 | 경북대 지리교육과 교수

경북대 지리교육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지리교육과 석사/박사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1·2”(창비교육),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천재교육) 교과서 집필

이정우 | 국립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서울대 사회교육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사회교육과 석사/박사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1·2”(창비교육),
“사회와 문화”(창비교육) 교과서 집필

김병연 | 공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서울대 윤리교육과 졸업
한국교원대 대학원 윤리교육과 석사
서울대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사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1·2”(창비교육) 교과서 집필